

202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11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

성경: 고전 10:14-22, 11:17-34

- I. 성경에서 영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의도가 먹는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라는 강한 표시이다 — 창 2:9, 16-17, 출 12:1-11, 16:14-15, 신 8:7-10, 계 2:7, 17, 3:20, 22:14.
 - A. 먹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하는 길이며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과 연합되는 길이다 — 창 1:26, 2:9.
 - B.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고,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 요 6:32-33, 35, 41, 48, 50-51.
 - C. 우리는 우리를 점유하고 적시는 것에 따라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 요 6:57, 빌 1:21 상.
 - D.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는 명절, 곧 우리의 잔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어야 한다 — 고전 5:7-8, 10:16-17.
- II. 주님의 상의 강조점은 그분의 피와 몸의 교통과 주님께 참여함과 상호성, 곧 교통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고전 10:16-17, 21.
 - A.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몸을 주신 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7.
 2.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그분의 모든 존재는 우리의 참여와 누림을 위한 것이다.
 - B.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 고전 10:16.
 1. 여기에서 ‘교통’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참여를 가리킨다.
 2. 이것은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하나 되게 한다. 우리는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동일하게 여긴다.
 3. 1장 9 절의 교통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이고 10장 16 절의 교통은 그분의 피와 몸의 교통이며,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C.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2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 고전 10:17.

1. 우리 모두는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다.
 2.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분의 한 몸이 된다.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시키신다.
- D.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상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실재이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누리고,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좋은 땅 안에 있으면서 그 땅의 풍성들을 누린다.
- E.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실행이나 영 안에서 어떤 분열도 없이 주님의 유일한 몸의 유일한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III. 주님의 만찬의 강조점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에 있다 — 고전 11:24-25.

- A.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의 몸과 피를 받는다.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그분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그분께 드린다.
- B.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상호성이 있다. 주님의 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고 주님의 만찬은 그분의 누림을 위한다.
- C.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24 절과 25 절의 ‘이르십시오(원문 직역)’라는 말은 주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을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결과를 함축한다.
- D. 주님에 대한 참된 기념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다 — 고전 11:24-25.
1. 떡은 생명에 속하고 잔은 축복에 속한다 — 요 6:35, 고전 10:16.
 2.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구속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뭇과 생명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참된 방식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 E.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 고전 11:26.
1.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진열하기 위한 것이다.
 2.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먹고 끊임없이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선포함으로 그분을 기념해야 한다 — 마 26:29.
 3.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그분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그 만찬은 왕국, 곧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하여 그분께 만족이 된다.
- F.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상 위의 떡이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유일한 몸을 대표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 — 고전 11:29.
- G.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주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어야 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 고전 11:26, 마 26:29.